

##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 Fashion의 경향에 대한 연구

李 銀 永

배재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A Study for Contemporary Fashion Trend in Extended Cultural Conception

Eun-Young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Pai-Chai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1. Streetism
I. 서 론	2. Cyber Punkism
II. 확장 문화적 배경	3. Haute couture
1. 반문화적 예술론	Romanticism
2. 열린 예술작품	IV. 결 론
3. 미디어 문화와 소비문화	참고문헌
III. 현대 fashion의 문화상징 전개	

#### Abstract

Now, this time we regarde as daylife is a part of culture in novelty view of modern culture study.

Specially, we can see terms about style surfing supermarket style through visulization process for critic, combination, reconstruction, of modernism, that is post modernism.

Not new style show up any more but displayed union of past style history complex, slices of decoration series.

A designer group called as memphis, they designed such like that.

Our view for fashion could be new in the technology, mixed media, cyber situation is stimulated us and accepted in extened concept of culture.

In this study, I aproched as a view of streetism cyber punkism haute haute couture Romantiscism linked extension concept of culture. Haute couture fashion has the most historical, and constructive and decorative aspects, and regarded as principle of construction of deconstruction. And this season trend is romantic & emotional image are complexed.

## I. 서론

모든 시각예술이 그렇듯이 현대 유행에 나타난 시각적 부조리, 기호와 이미지의 소비형식들은 상대적으로 미학적 무정부주의의 시대를 보게 한다. 현대 문화연구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나타내며, 일상은 문화자체로 보여진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평 혹은 수용하며 조합, 조립 재구성하는 시각화의 과정을 거치고 혼란 가운데 스타일의 항해(surfing), 슈퍼마켓 스타일등 다양한 장식의 파편들 뿐 아니라, 역사의 조합, 양식의 합성, 그리고 정작 구조는 해체되어 벗어나며, 이탈하는 유동적 형태를 보여준다.

테크놀로지, 믹스드미디어, 사이버환경은 또다른 자극환경으로서 우리가 최근의 현대유행 fashion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된 환경, 확장된 문화개념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반 문화와 매체, 미디어 문화, 소비문화로서 살펴보고 현대 유행이 어떤 양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으로서 문화 속에서의 상징으로서 나타날 때 가장 큰 특징인 거리문화 속에서의 Streetism, 컴퓨터 환경에서의 Cyber punkism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는 과거의 haute couture fashion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보다 미래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한 현대와 가장 대응되는 개념으로 Romanticism의 시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주로 문화연구 이론 서적과 최근에 발간되는 패션연구소 정보지, 그리고 fashion 잡지를 참고하였다.

## II. 확장 문화적 배경

문화의 정의는 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첫째 지적, 심미적, 정신적 계발의 일반적 과정, 둘째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

식, 셋째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행위로 정의했다.<sup>1)</sup>

즉 두 번째 정의에서 문화는 의미하거나 의미를 생산하거나 또는 의미 생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텍스트나 문화적 실천행위를 말하고 특정방식이란 해변가의 휴가나 젊은이의 하위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들 보통 살아있는 문화 또는 문화적 실천행위라고 부른다.

90년대 이후의 현대 유행은 Williams의 첫 번째 문화적 정의보다는 실천적 혹은 의미 생산적 문화속에서의 특정방식 즉 하위문화의 유행이 압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유행적 배경을 반문화, 열린예술작품, 미디어와 소비문화 속에서 살펴보았다.

### 1. 반문화적 예술론

현대예술이나 복식에 있어서 범민족적 요소와 대도시 유행은 90년대 세기말 디자인에 이르고, 하이테크 디자인에서 수공예적 전통, 과거로의 회귀, 미래를 현대로 끌어들이는 사이버 디자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신적 혼돈과 과잉 몰신(자본)주의, 형식의 탈출 등은 변성적 형상<sup>2)</sup>과 21세기 디자인에서 보이는 해체경향 즉 형상의 유동성<sup>3)</sup>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이는 본질 및 근원적 형태에 대한 목마름과 새로운 형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Herbert Read(1982)는 '원시시대의 가면울 쓰고 의식을 행하였던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주술적 의미가 강하였고, 그 근거에는 삶의 의지가 깔려있는데, 그 생명력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초적 생명력을 표현하느라 원시인간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코브라 화가들이 있고, 장 뒤뷔페는 반 문화예술의 전형으로서 정신병자들의 조형표현을 발견하고자 하였다.<sup>4)</sup>

1) 존 스토리, 박모, pp. 13-14, 1994.

2) 배해경, 코브라그룹의 회화연구, 현대미술의 동향, 이화현대미술연구회, 눈빛, p. 236, 1994.

3) 움베르토 에코, 조형준 옮김, 열린예술작품, 새물결, p. 153, 1995.

4) 안소연, 장 뒤뷔페의 반문화 예술론, 현대미술의 동향, p. 234, 1994.



<그림 1> 장 뒤뷔페, 순진한 소녀

이러한 조형형태는 형태에 왜곡, 불균형, 그리고 불균형변형이라는 시각적 특성도 유추해냈다. 이들의 공통적 표현은 지고의 가치로 여겨져온 전통적 미관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누군가를 위해 매력과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했다. 또한 뒤뷔페는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진흙, 쓰레기 오물 속에서 그 재료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1944년 무연탄 빛 대형누드(그림 1)를 비롯 1950년대 여인의 육체 시리즈에서 여체를 근악하고 상처투성이로 표현했다.<sup>5)</sup>

장 뒤뷔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그렸으며, 사치 질서도 예술규칙도 부정하는 변천의 원리가 세계 자체와 그 속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대법칙적인 세계를 보여주었다.<sup>6)</sup>

뒤뷔페의 작품을 통해 현실의 혼란이 도달하게 한 곳은 기억이 개혁을 위한 무한한 힘인 곳, 삶이라는 마술이 자유의 축하를 받는 곳이었다.

뒤뷔페, 코브라의 예술가가 이른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은 철저한 반 근대주의 사상 위에 위상기하학, 집합론, 양자역학, 신비적 크리스티교, 노장사상까지 결합시킨 것이었다. 이는 현대 대량소비사회의 폐기물을 예술에 재활용시키는

의도로 60년대의 폐품문화에 앞서 시도된 것이었고, 비조형적 재료의 활용, 비예술적재료의 도입을 통해 조형적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이는 예술을 예술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문화로 과급시킨 미래주의자들의 작품 속에 표현되었다. 이후의 미학은 대중매체를 위한 환경 위에서 테크놀로지와 함께 변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었다.

## 2. 열린 예술작품

과학 기술의 발달은 현대미술에 있어 강력한 표현수단을 제공하였고 미술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즉 미술을 특권계층의 전유물로부터 대중이 향유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물체의 존재는 그 물체가 수반하게 되는 수많은 이미지로 해체되고 있다. 대량생산은 물체가 갖는 이미지로부터 단일성을 제거시키며, 물체의 정체가 신속하게 판별되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기호가 되도록 만든다.<sup>7)</sup>

하이데거는 테크놀로지가 세계를 획일화, 객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특정 방식이 형성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구의 사용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고는 벤야민의 이론과도 유사하다.<sup>8)</sup>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의 대량복제 및 그 유포는 현대생활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미디어는 예술의 본질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순간들의 연속으로 와해시켰다.

따라서 현대예술은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정보사회를 통한 인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를 열린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회화에서 볼 때 '비구상 예술'이란 범주에서 보면 포괄적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자극을 형상화하며, 수용자가 온갖 방식으로 작품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5) *Ibid.*, p. 259.

6) 미술의 근원을 향하여, Jean Dubuffet, Karel Appel, Pierre Alechinsky.

7) 로버트 휴즈, 새로운 충격, p. 324.

8) 안인기, 테크놀로지의 수용과 현대미술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p. 5, 1996.

배치하기 때문에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예술의 본질에 있어 질서와 엄밀함을 말하는 것으로 예술이 자연의 유기적 성격, 자연의 내적인 형식 형성적 성격, 형식의 성장의 역동성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 변수이다. 대지의 풍경이나 윤곽 또는 벽위의 얼룩과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질서와 엄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자연의 사건의 유동성을 반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열린 자연을 재현하는 규정된 작품이다. 다른 형태의 조형예술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자못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리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파브소너(Naum Pavsner)와 가보의 구성주의에 공통적인 특수한 현실관은 기계화된 문명의 피상적인 측면이나 시각적 자료를 '입방체적 차원'이나 '조형적 크기'로 환원시킴으로써 도출된 것이 아니다. 현대과학이 밝힌 물리적 우주의 구조적 과정에 대한 통찰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예술은 과학이 탐구하고 드러내는 이 우주적 다양성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조형적 상징의 구체성으로 환원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예술의 주요한 기능이다.<sup>9)</sup>

현대 예술의 구조적 과정을 새로운 기술들은 이미지의 혼합, 변형, 매체의 직접성, 상호작용성 등의 개념으로서 60·70년대의 기술용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10)</sup> 이는 매체를 통해 다시 조형으로 환원되며 인식 구조의 체계에 해체를 가져왔다.

### 3. 미디어 문화와 소비문화

대중매체는 사진술,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가정용비디오, 신문, 광고, 만화잡지, 출판물, 그리고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대중매체의 공통적 특징은 정보를 기록하고 보급하며 복제하는 기술적 장치의 사용이다. 이 매체가 기존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매개물이자 회로가

된 이래, 모든 수준의 문화의 사례들을 증개한다.<sup>11)</sup>

이는 Daniel Bell에 의하면, 현대의 문화상황의 모순 속에서 단지 미적 즐거움, 직접적인 만족, 경험의 강렬성만을 목표로 삼아 쾌락주의와 무질서를 야기시킨다고 보았다.<sup>12)</sup>

그러나 변해버린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두뇌보다 빠른 컴퓨터의 출현에서 '현실을 대체한 가상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비판적 사각을 유지하고 예술적 실천이 이러한 전환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특히 현대 대중사회는 보들리야르<sup>13)</sup>가 소비의 사회에서 말했듯이 소비개념의 혁신은 상품(사물)소비의 사용가치의 소비를 포함하는 동시에, 행복, 안락함, 풍부함, 성공, 위세, 권위, 현대성 등의 소비도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후자에 소비의 본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착상은 보들리야르로 하여금, 사물을 기호로 파악하게 하고, 또 사회를 의미작용의 체계로 해석하게 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욕구를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차이에 대한 복구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방식을 기호로 해서 그는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차이화의 논리란, 사람들은 상품(사물)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세계에 의한 주체의 패배와 소비의 전면적인 지배를 초래한 이 물화된 세계에 대한 극복을 의문으로 남게 한다.<sup>14)</sup> 이러한 상품소비의 배경은 광고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광고는 영상매체와 대중매체 속에서 소비를 창출한다.

F. Jameson(1988)이 주장했던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미학적 대중주의, 문화산물의 깊이 없음, 역사성의 빈곤, 행복감의 단연, 의미구조의 해체, 환영의 논리, 표현의 해체, 혼성도방(pastish)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

9) 움베르토 에코, 열린예술작품, 새물결, 1995중에서, 밀라노, 펠트리넬라, p. 154, 1961.

10) 안인기, *ibid.* p. 21.

11) 존 A. 워커,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p. 20.

12) 안인기, *ibid.* p. 51.

13) 장 보들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p. 314, 1994.

14) *ibid.* p. 315.

장 잘 전달할 수 있다.

J. Baudrillard가 텔레비전을 포스트 모더니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간주했던 것도 텔레비전이 사회적·일상적 삶의 영역 속에서 기호화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소비문화, 대중매체에 의존하게 되는데 다니엘 벨 역시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또 상품생산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중심이동을 얘기했고, 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에서 미래사회를 테크놀로지와 그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내다보고 있다.<sup>15)</sup>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사회에서 F. Jameson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카데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종말을 나타내는 주장과도 관련이 깊다. Jameson은 개인적 주체가 사라진 것과 함께 개성적 양식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혼성모방이라는 것을 생겨나게끔 했다.<sup>16)</sup>

이것은 정신 분열적 문화를 낳게 하는데, 시간적 지속성의 붕괴로 인해 현재의 체험을 생생하게 하며 '물질화'를 시킨다. 이는 문화가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행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그 자체가 경제적 행위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호적 가치에 의한 소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소비자 독재시대'로 옮겨져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한다.<sup>17)</sup>

John Storey(1993)가 말한 것처럼 대중문화는 더 이상 역사가 정지한, 또는 정치적 조작에 의해 강요된 문화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쇠퇴와 타락의 징후도 아니며,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며 또한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신세대들은 더욱이 읽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익숙하며 물질적 풍요의 세대이다. 이점이 대중주의나 이미지 중심성(image-Centeredness)이 새로운 집단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시각매체가 더욱더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Scott Rash(1990)가 말한 것처럼 모더니즘이 담론적(discursive)이라면 현재는 이미지, 감각을 강조하는 시각적(figural)인 의미표출양식이 주도적이다. 이러한 소비 문화적, 시각적 상황은 문화적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보다는 '실행'되는 것을 요구한다. 시각시대에 유난히 시각적 부조리는 이 실행을 통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디어 문화권 안에서 더욱 개인주의적인 것은 사라지고 혼성모방하기에, 그리고 실천하며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 III. 현대 fashion의 문화상징 전개

테크놀로지, 전자매체, 소비문화를 통해 볼 때 현대 fashion은 엘리트 fashion은 사라지고 fashion의 상징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시대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문화의 확장개념에서 비롯된다.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이 문화로 간주되는데 이유는 전자매체를 통해 전 지구가 Mac Ruhan(1989)이 상정한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계열의 주장이 갖는 기술 결정론적이고 모더니즘 적인 함축들은 반대에 부딪치지만 공적 생활의 텔레비전 화는 후기 자본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서 무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증대를 가져왔다.<sup>18)</sup>

현대유행은 사회적 지위, 연령, 하위문화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며 동시 다발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유행의 현상에 대해 Davis(1991)와 Kaiser(1991), Behling(1985)는 유행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사회내 하위문화의 증가와

15) 서성록, 현대미술의 쟁점, 도서출판 계원, p. 33 재인용, 1995.

16) 존 스토리, 박모,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p. 244, 1994.

17)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p. 50,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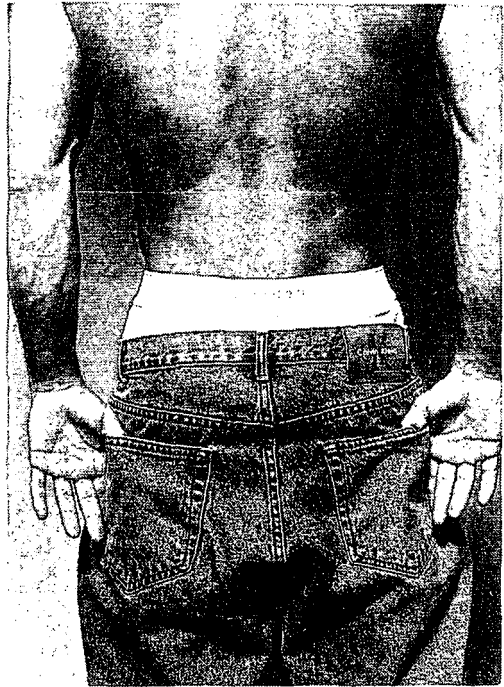
18) 벤에거, 김해식 옮김,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 옥토, p. 17, 1996.



<그림 2> Karl Lagerfeld for Chanel.  
(Evening Ensemble, 1992)

글무늬 흰색면직 탱크탑, 검은색 실크 풀 스커트, metal과 faux tortoise 체인벨트.  
Courtesy Chanel 라거펠트는 중심가나 민속복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거기에 샤넬의 재능을 결합시키고 또한 확장시켜왔다. 그 예로 라거펠트는 디자이너 라벨을 통해 패션의 결합을 추구하였으며, 속옷으로부터 시작된 한 단계높은 의복형식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열망은 모순된 요소에 대한 디자이너의 열정으로 수용되어 놀랍게도 수용되었다. 인프라 의상, p. 46.

조직력의 강화로 하위문화에 의한 상향전파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졌고, 현대인들의 의복은 지위상징외에 문화적 범주와 관련한 상징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행과정에서 환경운동, 실용주의, 평등주의의 이념이 나타나는 경향



<그림 3> Calvin Klein의 광고사진

Herb Ritts 촬영

1990년대의 도시생활을 나타내는 험령한 진이 허리밴드를 약간 노출시키면서 힘에 낮게 걸쳐졌다. 그것을 디자이너의 이름이 그대로 붙여져 1980년대와 90년대에 입혀졌다.

콘서트에 바지를 처음으로 힘에 걸쳐 입고 유명해진 Marky Mark라는 가수는 Calvin Klein 광고로 인해 더욱 친숙해졌다. 인프라 의상, p. 42.

이 있으며, 유행변화는 가속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였다.<sup>19)</sup>

90년대이래 현대적 유행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서 가벼움<sup>20)</sup>, 문화적 특성<sup>21)</sup>, 유희성<sup>22)</sup>, 해체주의 양식<sup>23)</sup> 등으로서 구조와 장식적 모더니즘과 달리 확장된 문화개념의 단면들을 볼 수 있다. (그림 2, 3)

19) 이윤주, 이영숙, 사이버 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6, p. 58, 1996.

20) 최윤미,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관한 고찰, 의류학회지, 18/5, 1994.

21) 김소영, 양숙희, 진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20/4, 1996

22)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학회지, 5, 22호, 1994.

23) 김지연, 전혜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학회지, 5, 32호, 1997.



<그림 4> DONA KARAN의 '98 SS를 위한 Collection의상 스타일보다는 고기능섬유의 장식이 특징이다.

(evening dress의 형식은 없으나 message는 있다. *Collezioni DONNA No. 59.*)

요즘 패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styling이 아닌 섬유와 장식가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sup>24)</sup> (그림 4) fashion에 있어 옷이 주도였던 시대는 끝나고 대신 미디어나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러한 면을 평가하는 시대인 것이다.

특히 현재를 자극하고 있는 fashion의 특성을 상징성의 이해와 변화라는 무엇이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 의 神戶의 패션미술관이 개관되었듯이,<sup>25)</sup> 즉 옷도 중시하지만 옷과 관련된 문화적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현대문화속에 상징되는 fashion의 변화를 거리 문화적 발상 streetism으로서, techno 문화적 발상으로서 cyber punkism, 그리고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haute couture Romanticism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1. Streetism

과거 엘리트주의 시대는 상부와 하부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스타일의 구조를 단단하고 다양하게 드러내었다.

반면 90년대 전위적 경향의 복식은 초현실주의와 팝아트 복식(그림 5, 6) 등에서 무질서, 풍자, 장난, 패러디 등이 보여지며 이는 흥미를 유발하는 유희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유머의 본질이 우월성, 부조화, 억압에서의 해방에서 찾고 있다.



<그림 5> Thierry Mugler의 haute couture collection의상 '97 A/W

(*Collezioni Haute Couture No. 60.*)

24) FASHION FORUM, 삼성 fashion 연구소, 97, 8, p. 20.

25) FASHION FORUM, 삼성 fashion 연구소, 97, 6, p. 26-27.



<그림 6> Thierry Mugler의 fantastic의상  
(Collezioni haute couture No. 60)

26) (그림 7)

또한 패션뿐 아니라 아트나 디자인 분야에서도 투명 감을 추구하는 작품이 두드러진다. '97 춘하의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대개의 꾸뛰르가 색채가 다른 조오켓이나 오간디, 시폰 등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입는다고 하여 가벼움과 투명의 절대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프라다, 돌체&가바나, 질샌더, 로렌스 스틸, 아르마니, 페레가 그렇고 패션상점의 인테리어도 소재로서의 가벼움과 투명감,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아크릴 판이 주역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유는 무거운 관념보다 가벼운 감수성으로 살아가려는 가벼움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옷과 겉옷의 구별이 없어지고 겉옷 밑으로 비쳐 보이는 속옷 그 자체가 디자인되고, 인간의 신체도 디자인의 일부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그림 7> Comme des Garçons.  
(Lace Sweater 1982-83 가을·겨울)

Rei Kawakubo의 레이스 스웨터 디자인은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찬성과 반대로 즉시 분리시키면서 fashion이 되었다. 반사회적 fashion 인프라 의상, p. 99.

있다. 이런 패션에 있어 창조성과 환타지는 속옷 분야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생긴 요소와 조합되어, 화려한 속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는 옷을 뒷받침하고 디자인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쓸 데 없는 것을 잘라내어 심플하게 되어 가는 특징이 있다.<sup>27)</sup>(그림 8)

이것은 또한 미니멀리즘 작가의 기본적 성향으로서 소재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재를 부각하고, 전통적 형태를 재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의상을 보인다.<sup>28)</sup>(그림 9)

26)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27) FASHION FORUM, 97 / 4, p22-23.

28) 이효진,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아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96, 8, 29호, p. 35.





<그림 8> Jean Paul Gaultier

(haute Couture collection '97·98 A/W Collezioni haute Couture No. 60)

방대한 문화소비자로서 일상생활의 실천과 즐거움의 지향성으로서 드 세르토(Certeau, 1984)가 피지배 대중의 일상적 저항의 실천이론은 대중문화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즐거움의 문재와 결합하여 대중문화가 저항적 즐거움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29)</sup> 즉 패션을 문화적 실천의 한 방향으로 볼 때 대중의 삶의 조건과 욕구를 반영하며 나름대로의 하위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최근 유행에 나타난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원시주의적 특성은 해학과 감성으로서 선정성은 에로티즘에, 또한 환상적인 것은 사이버패션으로 표현되어진다.<sup>30)</sup> 스트리트리즘은 하위문화적 정체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저항, 해학, 가벼움, 욕구발산 등의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Cyber Punkism

29)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아카데미, p. 53에서 재인용, 1995.

30) 이은영, Street style의 미적 의미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1996.



<그림 9> 소재, 디테일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런던 Owen Gaster 작품

(Sporty combination과 evening jacket의 시도. Donna Collezioni A/W No. 59)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은 새로운 체계로 자연과 문화, 테크놀로지·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재고를 요구한다. 일차적으로 물리적 자연과 육체적 인간사회는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 재편된다.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미술소통 구조의 혁신적 가능성을 열었으며 컴퓨터의 이용은 미술사체를 완벽하게 정보화 함으로써 물질로서의 예술이 아닌 개념과 데이터로서의 예술, 가상과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래의 인간의 활동 범주는 실재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 정보의 흐름으로 규정될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 속의 접속은 공간

에서 육체적 접촉이 지나는 동시적인 만남과는 구분된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존의 물질에 기반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비물질적 유동성과 구조의 분열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특징적인 결정 형태로 파악해온 문화적 정체성의 논리를 거부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은 70년대 이후 정보 과학의 도래로 과학을 사회현상에 대입해 철학적으로 설명했던 미셸 세르(Michel Serres)가 제기했던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가 말한 어긋광대란 자운동체,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물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한마디로 멀티미디어 적인 개체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개체성은 20세기 산업문화에 길들인 사람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모습으로 비쳐지기 쉽다. 실재 techno style, cyber punk는 하위문화의 성격으로 드러나 지고 있다.<sup>31)</sup>

사이버 펑크는 20세기 통신 및 제어이론인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기존사회에 반항적 성격을 띤 펑크(punk)의 합성어이다.<sup>32)</sup> 사이버펑크는 문학, 예술, 음악, 영화, 섹스, 패션 등에 표현되는데 패션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펑크족의 반항적 패션요소가 하이텍크와 원시적 요소의 융합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그림 10)



<그림 10> Yoshiyuki Konishi의 의상,  
(Fashion today, 95 / 11)

사이버 펑크족은 사회 규범에 도전하기도 하나, 결국 컴퓨터를 매개로 인간의 유대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인종과 국가의 벽을 허물고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움직임이며 과학이 낳은 소외와 단절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하려는 생활방식인 것이다.<sup>33)</sup>

Cyber Punk의 정신은 고도의 기계적 과학매개체를 중심으로 소외된 인간관계도 풀며, 자연 주의적인 것을 지향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메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하며 잡다한 것을 컬렉션 하는 키취취미와 함께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하려 할 것이다.

### 3. Haute couture Romanticism

여성복에서 볼 때 파리의 haute couture는 20세기 이후의 여성복의 기능적 유행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능과 심미적인 고려는 디자인의 미에 있어 시대의 이상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Catwalk style이나 Street style에 있어서는 기본과 기능에 따라 자유로이 개성을 표현해 왔고 최소주의 장식은 미니멀 양식과 함께 오히려 미학적 무정부주의를 표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8/'99 추동 트렌드 세미나가 파리의 trend union에서 열렸는데 이곳의 메시지를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는 새기말을 맞이하여 과거에서 미래로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부유한다.

최근 수년 패션업계는 '60S, '70S, '80S의 가까운 과거를 모방해 왔는데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려 하고 있는 현재, 중세에서 석기시대까지 인류의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미래의 인스퍼레이션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금괴, 팬시페트릭, 동물왕국등의 테마가 인스퍼레이션의 원천이 되었으며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고, 안티패션의 시대에서 다시 옷이나 소재 자체에 사랑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sup>34)</sup>

이러한 경향은 타임지 97년 3월 21일자에서도

3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p. 251-252, 1997.

32) 이윤주, 이영숙, 사이버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가정학회지 34권 6호, p. 62, 1996.

33) Ibid, p. 67 재인용.



<그림 11> Mugler의 끈충 design,  
(Times 97 / 3. 21)

'The Romance is back'이란 제목으로 fashion이 기사화되었다.

양식적으로 볼 때 최근까지의 미니멀 양식에 반해 haute couture는 장식과 고급바느질, 과장, 쇼를 위한 과시가 보여져 이를 낭만적 주제의 표현으로 보았다.

특히 couture에 대한 향수와 오래된 라인의 추구는 상류사회로 되돌아가려는 흥분에 휩싸이게 했다. Jean Paul Gaultier는 기모노 자켓을 통해서, John Galiano는 디올의 디자이너로서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영감의 원천으로 하였다.

장식적이지 않고서도 neo-rococo 복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high french fashion으로 남아 있는데, Mugler는 과거에 공포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97년 1월에 그가 보여준 것은 그의 작품 100벌 모두가 끈충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그림 11)

Jean Paul Gaultier는 그 친화성과 찬밀감으로 히트를 했다.

Mugler나 Jean Paul Gaultier는 모두 아틀리에에서 훈련된 디자이너이고 사업수완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새롭고 보다 도전적이었다.

haute couture를 생기있게 하는 것은 파리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먼저 디자이너들이 Mugler나 골띠에처럼 장관을 연출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고객을 의식한 재능을 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갈리아노의 바이어스 재단과 몸에 맞게 한 것을 유행의 대중도 서서히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어스 커트는 입기가 어렵고 배와 힙에서 보기 좋게 지나, 섹시하고 매력적인에 대한 도전이 있다.

1996년 Cerruti의 젊은 디자이너 Narciso Rodriguez에 의해 디자인된 웨딩가운이 있었다. 이 역시 갈리아노의 이미지와 영감이 있어 보이는데 슬립드레스(Slipdress)라는 것이다. 슬립드레스는 란제리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거리에서나 어디에서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대부분 Couturier의 의도는 쉽게 각광을 받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가벼움이 전부이다.

어떤 비평에서는 아틀리에가 장중함의 엄한 느낌과 수준을 잃어버렸다는데 사실이다.

타프타 불가운(ball gowns)에도 위엄이 덜하고, 크리놀린과 리본으로 장식된 라테일 의상에도 고리가 별로 없다. 그런 정교한 의상은 박물관 의상 연구소의 전시용이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된다.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에서 영국 패션에 대한 전시가 있었는데 많은 관람객은 의상의 정교함과 그 착용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놀라와 했다.

1980년경 조르주 아르마니의 자켓구조의 변혁 이래 디자이너의 의도는 보다 유연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90년대초 라거펠트를 포함한 몇몇의 디자이너가 그런지를 시도했지만 실패였다. 그러나 라거펠트는 방식을 바꿔 사치스런 쇼를 꾸렸다. 라커펠트의 기적가운데 전통 클래식 수트를 조정하여 길고 넓은 손목소매를 달았다.



Long vermilion duchesse satin A-line dress with "br

<그림 12> Christian Lacroix의 작품  
(Collezioni haute Couture 98 A/W No. 60)

지아니 베르사체는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조각에서 영감을 빌어 조각 같은 옷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아직도 라크르와(Lacroix)의 멋진 ball gown을 동경한다. 청중은 그의 쇼에서 휴식을 하고 예술적이고 소양 있는 전시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크르와는 언제나 장식적이고 다테일에서의 새로움을 준다.(그림 12)

이브 생로랑에게는 아직도 프렌치 칩(French Chic)이라는 향수가 있다.<sup>35)</sup>

1988년 크리스찬 라크루와는 Vogue 3월호에서 '나의 모든 작품은 역사적인 것, 과거의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과 관련이 된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새로 발명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많은 디자인 작품의 자기관련 본성(Self-referential nature)을 입증하였고, 확실히 그의 작품결과에 나타난 풍부한 질감, 비늘,

스커트를 번치고 있는 뼈대는 18, 19세기의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디자이너들은 현대복식 규범의 파괴를 일삼는데, 예를 들면 John Galiano는 앰파이어 시대의 댄디즘의 낭만적 재현을 풍성하게 구성한 것에 대해 80년대 후반 저널리스트의 환대를 받았다. Zandra Rhodes는 런던, 보헤미안과 거리 패션에 대한 독자적 해석 때문에 60년대 후반부터 악명을 높이고 있다. 70년대 초반 Rhodes는 스크린이 프린트된 실크 쉬폰 이브닝 드레스는 반문화(counter culture), 반 상업주의를 에스닉, 동양풍, 집시모티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sup>36)</sup> 97년 여름 haute couture는 트렌드를 일괄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기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좋겠다고 했다.

에스닉이라 하여도 시누와(Chinois-디올), 아시아, 일본(겐조), 고대 이집트(갈리아노), 동유럽(샤넬)등이고, 골띠어나 장 콜로나는 파리의 세련된 스트리트 Couture를 표현하였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6세기에 대한 것, 앤 도메르메스텔이나 H. 랭은 검정을 주제로 한 Masculine Feminine 스타일을 minimalism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엘레강스한 couture 감각으로 승화시켰다.

꿈의 데 가르송은 옷을 해부학같이 해체하여 재 구축하는 방법에 도전하여 마치 couture의 실험실 같았다<sup>37)</sup>는 기사에서 볼 때, Haute couture는 창작과 비즈니스의 딜레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이는데, 디자인의 세계에서 기능과 창작의 영원한 딜레마로서 시대의 이상을 보다 권위적인 실험으로 보여질 것으로 여겨진다.

fashion의 변화에서 볼 때 Ralph Lauren, Calvin Klein, Giorgio Armani는 1970년대 중반부터 규모와 속도에 있어 fashion 왕국에 바람을 몰고 왔다.

80년대에는 개성의 예찬(Cult of personality), 언론의 신뢰, 마케팅의 전략이 보여지고 90년대에는 fashion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여졌다.

35) TIMES, 97. 3. 21, Special Report.

36)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232, 1994.

37) FASHION FORUM, SAMSUNG fashion INSTITUTE, 97/6, V. 48.

이는 서구세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의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된 것이다. 사람들은 fashion 의식을 유지하고자 하며 점점 더 커졌고, 풍성하여졌다.

의심할 여지없이 의복의 힘은 모든 의사소통 그 자체였다. 1980년대는 마케팅 기술에 따라 디자이너의 라벨 때문에 작업복인 진웨어의 스타일도 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고(timeless) 기능적인 의복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로 fashion은 주기적이고, 덧없는 역사적 증거로의 변형이지만, 그 의미의 구조의 신뢰와 'Spectacle'의 역할은 직접적 해석을 복잡하게 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설명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그 저널리즘과 의식(celebration)의 세계로 순식간에 빠져들게 한다. 즉, 20세기 후반 fashion 혁명의 특징으로서 각 개인이 신뢰할만한 반영된 메시지와 영향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험에 대한 논쟁이 있다.

최근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서 역사와 문화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예술과 디자인 역사에서 꼭 맞는 초점으로서의 물리적 주제의 고려와 함께 이 텍스트의 초기논쟁에 대한 알맞게 잠재적으로 적용될 결론의 최근의 주제에 대한 연구에 제한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sup>38)</sup>

즉 20세기 후반의 fashion 변화는 광고, 음악, 시네마, 텔레비전, 잡지, 비디오 등등 전자매체가 생산하는 환경과, 하위문화 등의 광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행에서의 소비자연구와 문화연구의 관점 예를 들면, malcolm Barnard<sup>39)</sup>, Christopher Breward<sup>40)</sup>, The face of fashion<sup>41)</sup>이 그것이다.

70년대의 technology, 80년대의 marketing 기술, 90년대의 보다 진전된 정보문화의 메시지 속에서 용해되는 fashion 해석의 문제는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통해 해석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게 보낼 메시지를 가지고 각각의 fashion을 말한다.

##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90년대의 유행경향에 있어 두드러지는 난해한 스타일의 근원 확장된 문화개념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았다. 확장된 문화개념은 첫째, 반문화적 예술배경, 즉 지고의 가치인 전통적 미관을 탈피하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매력과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한 예술가들에게서부터 문화로 파악시킨 미래주의자에게서 비롯된 작품들 속에 용해되었다.

둘째,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복제가 가능한 대량생산 체계의 문화적 배경이 또한 물체가 갖는 이미지로부터 단일성을 제거시키며, 물체의 정체성을 신속하게 판별함으로써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즉 예술이 과학이 탐구하고 드러낸 우주적 다양성속에서 이해되며 근혁적 상상의 구체적 형상화는 미를 열린 시각으로 보게 하였다.

셋째, 미디어와 문화와 소비문화는 사람들의 인식적 변화와 물질주의적 사고주의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서 이러한 배경속의 스타일의 변화는 Streetism, cyber punkism, haute couture Romanticism으로 생각해 보았고 현대 유행의 연구가 문화적 측면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으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중문화와 함께 90년대 이후의 유행경향은 선택적이고 다양함 속에서 실천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라쥬나 수퍼마켓 스타일에서 보여지며 현대 유행경향은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1997.
2.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아카데미, 1995.

38) Christopher Breward, p. 221.

39) Malcol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40)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41) Je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London & New York, 1994.

3. 로버트 휴즈, 최기숙 옮김, 새로움의 충격, 미진사, 1993.
4. 미술의 근원을 향하여, Jean Dubuffet, Karel Appel, Pierre Alechinsky, 1997.4. 15~6.30, 카달로그.
5. 밴애거, 김혜식 옮김,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 연구, 옥토, 1996.
6. 서성록, 현대미술의 쟁점, 도서출판 재원, 1995.
7. 안소연, 장 뒤뷔페의 반문화 예술론, 현대미술의 동향, 1994.
8. 안인기, 테크놀로지의 수용과 현대미술의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9. 움베르코 에코, 조현준 옮김, 열린예술 작품, 새물결, 1995.
10. 장 보들리아르, 이상률,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4.
11. 존 A. 워커, 정진국역,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5.
12. 존 스트리,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13. 현대미술의 동향, 이화현대미술연구회, 눈빛, 1994.
14.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15. Je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ulture Studies in Fashion*, London and New York, 1994.
16. Malcol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 New York, 1996.
17. Richard Martin, Harold Koda, 이선재 역, 인프라의상, 경춘사, 1996.
18. 김소영, 양숙희,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994 20/4.
19. 김지영, 전해경,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학회지, 1997. 5 32호.
20. 이윤주, 이영숙, 사이버 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6 34/6.
21. 아은영, Street style의 미적의미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자연과학 논문집, 1996.
22. 이효진,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아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96. 8, 29호.
23. 최윤미,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관한 고찰, 의류학회지, 1994 18/5.
24.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학회지, 1994. 5 22호.
25. *Collezioni DONNA*, N. 59.
26. *Collezioni Haute couture*, N. 60.
27.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97.4.
28.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97.6.
29. FASHION FORUM 삼성패션연구소, 97.8.
30. TIMES, 97년 3월 21일.